구속·석방 시민 의견 반영한다

광주지검 '수사심의위' 교수·기업인·시민 대표 등 25명 위촉

광주지검 수사심의위원

성명	나이	직업
김혁종(위원장)	52	광주대총장
신광식	45	변호사
임태호	41	변호사
천형욱	49	변호사
윤귀하	73	법무사
남홍식	71	법무사
오용일	64	법무사
김재윤	39	전남대교수
권순민	39	조선대교수
주재진	35	호남대교수
김형만	53	광주대교수
장헌권	53	목사
이정주	43	천주교사제
윤창열	64	천지지하개발대표이사
김기영	58	엠엘아트 대표이사
김행자(여)	67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나신영(여)	64	어린이집원장
정명숙(여)	58	보성건설대표
양홍선	65	세무사
선흥규	51	공인회계사
이정봉	43	공인노무사
홍경표	43	의사
이경오	58	약사
정성남	68	광주시행정동우회회장
유태오	69	광주교육삼락회회장

투명성·객관성 향상 기대

앞으로 검찰의 인신 구속 및 석방 결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등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중요 자료로 활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심의위가 본격 가동되면 인신구속과 관련된 검찰의 결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져 기존 수사관행의 개선이 기대된다.

광주지검(검사장 길태기)은 23일 오전 11시 지검 5층 회의실에서 지역 전문가들과 시민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심의위'는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기업인, 시민 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취소 여부 등을 논의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심의위'의 논의 내용은 강제력 없이 권고적 효력 만을 갖게 되지만 검찰은 '심의위' 의견을 인신구속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위원회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초대 위원장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고문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광주지부' 고문을 맡고 있는 김혁종 광주대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신광식 변호사와 윤귀하 법무사, 김재윤 전남대 교수, 김행자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 정성남 광주시행정동우회장, 양홍선 세무사, 선흥규 공인회계사, 이정봉 노무사 등이 위촉됐다.

또 장헌권 서정교회 목사와 이정주 광주가톨릭대 교수, 나신영 어린이집 원장, 정명숙 보성건설 대표, 홍경표 내과의원 원장, 이경오 조선대 약학대학 교수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표 참고〉

앞서 광주지검은 '심의위' 위촉을 위해 지난달 25일 광주·전남지역 사회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며, 지난 11일 내부 조율을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위원은 광주지검의 주임 검사가 위원회에 회부한 영장 재청구 또는 구속취소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 25명 가운데 5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인신 구속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05년 창원지검이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대한 확대 시행이 추진돼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교대 러시아 연수 중단

숨진 강씨 25일 학교葬

러시아 연수 중이던 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한 광주교육대학교는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와의 해외 연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교대는 22일 "교류협정에 의해 올 1학기 동안 교환교수 및 학생으로 입교할 알타이 국립사범대 러시아 교수 2명과 학생 5명 등 7명에 대한 교환 프로그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교대 학생회는 이날 교내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숨진 강모(22)씨의 장례식은 시신이 운구되는 대로 24일 빈소를 마련한 뒤, 25일께 학교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광주교대는 또 앞으로 실행될 모든 해외 어학연수는 학생의 안전과 현지의 치안 및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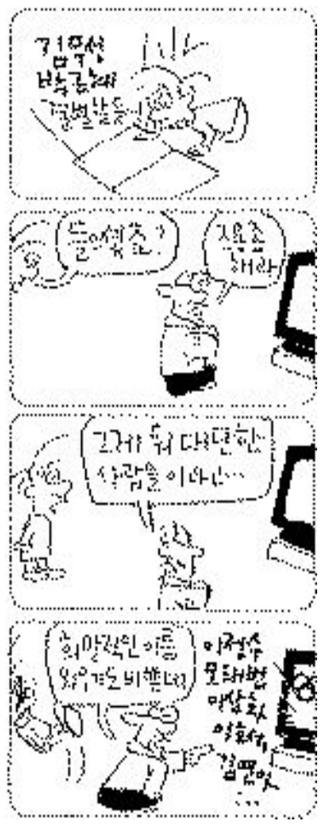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광주교대를 방문하는 연수는 국가와 학교 간 신뢰 등의 문제를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러시아 알타이 국립사범대 교수·학생과의 교류는 광주교대생들의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

러시아에 체류중인 연수단은 23일 오후 현지에서 출국, 24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학생 인솔을 위해 이동우 기획연구처장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25일 학교장으로 강씨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며, 보상은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유가족과의 협의 하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참 〈8044〉 김종두



졸업식장 '묵념' 22일 오전 광주교육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전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러시아 연수중 집단폭행을 당해 숨진 강모(22)씨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서 40대 남 목 매 숨져

22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무등산 전망대 인근 야산에서 선모(46)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등산객 박모(5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선씨는 순천에 있는 친형 집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6월 소식이 끊겨 가족에 의해 실종신고 된 상태였다.

경찰은 "선씨가 우울증으로 10년 전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유족의 진술에 따라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분위, 결원이사에 또 옛 경영진 추천 인사

조선대 "수용 불가"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지난 1일 조선대 결원이사 2명 중 1명을 후보로 선임한 데 이어, 22일 또다시 나머지 1명을 선임해 조선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분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종전이사인 박성섭씨 등이 추천한 고광삼 전 조선대 의대교수와 정순영 전 사분위원 중 2명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씨를 조선대 이사 후보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지난 1일 후보로 선임된 주광일씨와 이번 정순영씨에 대한 조선대 이사 선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은 지난 1일 옛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의 이사회 진입에 반대하며 사분위 결정에 대한 수용 불가 천명을 한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 민주동우회와 총학생회 등은 결원이사 선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사분위·교과부의 월권을 용인해 이 같은 상황에까지 몰렸다는 이유로 금명간 이사장실 점거 등을 통해 이사회 전원 사퇴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은 최근 국무총리실에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선대 이사 선임과 관련,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선대는 23일 긴급 교무위원회 등을 열어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목포 주택가 방화 추정 불

22일 새벽 3시25분께 목포시 용해동 모 아파트 뒤 골목길에서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1대가 전소하고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이 불에 탔다.

경찰은 누군가 오토바이에 불을 놓은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탐문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불법조업 中 선박 2척 나포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30t급 저인망어선 노문어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5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72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잡어 40kg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이들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1억5천만원' 자전거보험 첫 지급

광주서 사망 40대男 유족에

개인용 자전거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사망한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첫 지급됐다.

22일 삼성화재와 장모(사망 당시 42세)씨 유족 등에 따르면 이 보험회사는 지난 12일 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장씨의 유족이 지난달 18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자전거 보험금으로는 전국에서 최고액이다. 공공자전거가 많은 대전이나 경남 창원에서는 자치단체가 보험을 들고 있지만 집단보험인 탓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수십~수백만원에 불과하다.

장씨가 가입한 보험은 한해 보험료가 10만9천930원이고, 사망이나 고도 후유장해 때 보험금 1억5천만원이 지급된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앞 4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가다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장씨는 당시 머리에 헬멧을 쓰고, 상·하의는 자전거복을 입은 상태였다. 장씨는 사고발생 다섯달 전인 지난해 7월 삼성화재의 상품에 가입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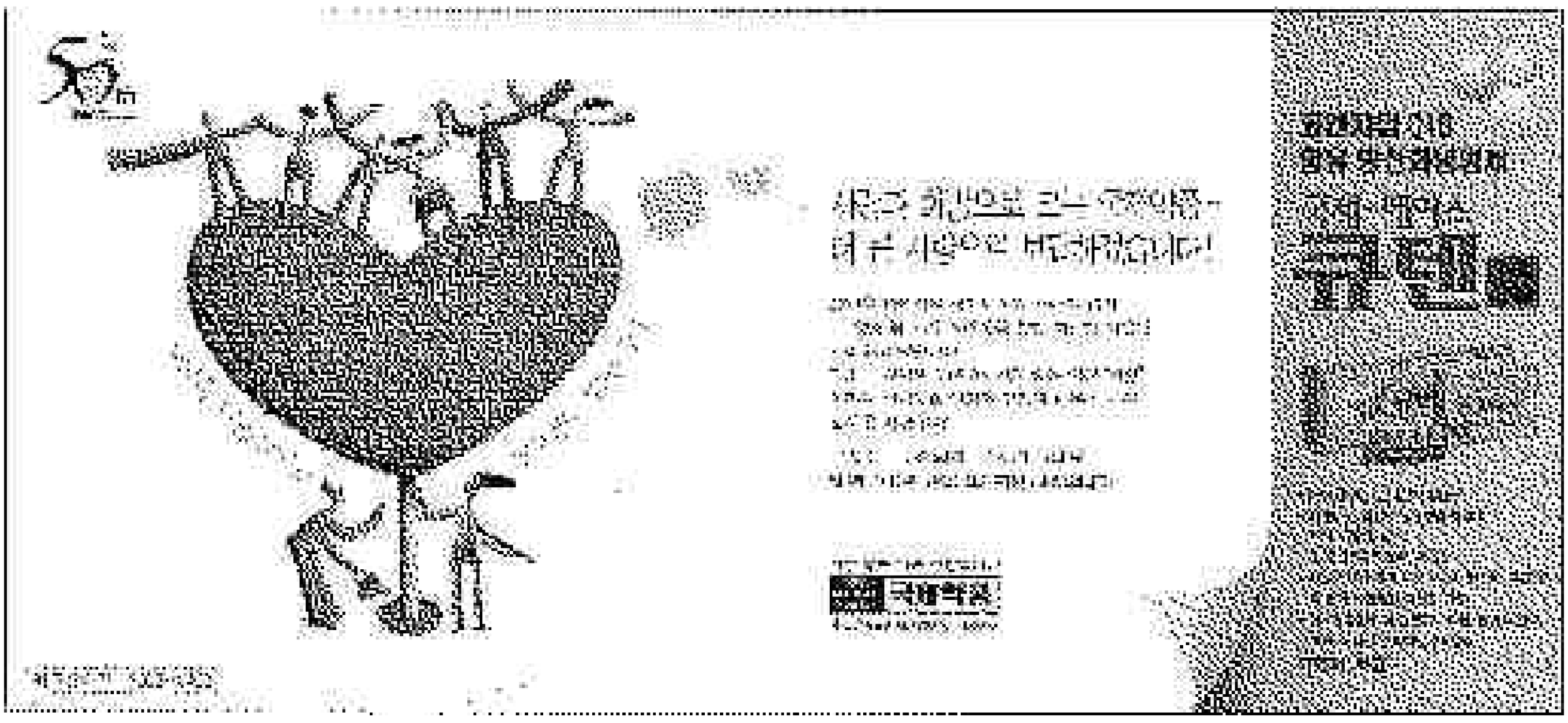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인도 염소 잡아 몸보신 하려다…

쌍나팔

○…목포해양경찰은 허가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무인도에 방목된 염소를 포획한 혐의(총포 등 단속법 위반)로 권모(46·신안군)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시 20분께 신안군 도초면 한 무인도에서 총포 허가 없이 소지한 공기총으로 염소 1마리를 잡았다는 것.

○…무인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권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몸 보신을 하기 위해 염소를 잡았다"고 진술.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